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3.4.27.(목) 오후 4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김희중,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등 10인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시청자센터부장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4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 먼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24시간 뉴스전문 채널로서 우리 사회의 굵직굵직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에도 연합뉴스TV는 이런 공적 업무를 열심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는 현재 <뉴스포커스>, <뉴스초점>, <TV 스페셜> 등을 통해 심층 보도물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층 프로그램들은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제작 완성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도 보지만 숲 전체를 조망할 기회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포커스>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2편 편성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국방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며, 회당 20분에서 40분 정도 제작됩니다. <뉴스초점>은 정치, 법률, 경제, 국제 등 당일의 중심 이슈를 10분에서 30분에 걸쳐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TV 스페셜>은 매주 일요일 1회 편성됩니다. 사회, 환경, 에너지, 지역문제, 전기차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집중 보도하는 것이 돋보입니다.

<뉴스포커스>, <뉴스초점>의 경우에 정치, 외교 등 논쟁적 주제에는 출연자가 2명이지만,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비정치적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출연자가 1명입니다. 출연자 섭외가 쉽지 않지만, 외부 출연자 1명은 좀 단출합니다. 사회적 이슈라 하더라도 출연자가 늘면 다채로운 입장과 정보, 생각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출연자 한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모든 것을 설명할 경우에 긴장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쉽지 않겠지만, 고정 출연자에도 일정한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다양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포커스>, <뉴스초점>의 경우에 편성 시간을 일정하게 할 수는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일 뉴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편성 시간이 바뀌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일부 대담에는 패널이 두명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혼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이 엇갈릴 수 있는 정치, 외교 안보 이런 쪽은 반드시 두 명을 출연시킵니다. 보수, 진보 양쪽을 출연시켜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구요. 사회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이슈와 연관돼 있는 경우는 두 분을 출연시킵니다. 다만 경제, 문화, 과학 이런 분야의

대담을 진행할 때는 가급적 한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세분 이렇게 같이 출연하시면 다양한 시각으로 들을 수 있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담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그 자체도 시청자가 느끼기에는 지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따라 패널 수를 잘 조정해보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기자 출연도 한번 감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추승호 보도본부장

사실 기자 출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본인이 어느 한쪽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를 위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운데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거든요. 문제는 저희 기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나가서 취재하고 리포트 준비하고 단신 쓰는데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대담에 투입을 하게 되면 반나절이 다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주십시오.

▲ 안호림 부위원장

- 프로그램명 : 여의도풍향계, 방송일시: 4월17일 07시6분, 여의도풍향계는 정치1번지인 국회에서 벌어진 이슈와 주요현안을 심층적으로 알려주고 시청자들에게 속사정을 쉽게 풀어주는 좋은 해설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리포트한 내용도 <국회의원 100명 선거제 난상토론..내년 총선 규칙 바뀔까>로서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를 잘 다룬것으로 평가됩니다.

총선 게임의 법칙인 만큼 관심도는 높았지만 어려운 용어와 제도로 인해 시청자들의 이해도는 낮은 주제였습니다.

국회에서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를 잘 취재해서 여야 의원별로 제시된 주장과 의견들을 리포트했습니다. 리포트는 '토론'이란 취지와 달리 '릴레이 발언'처럼 진행된 점도 지적했고 여야 간 의견들이 엇갈려 선거제 합의안 도출이 안 된 점도 꼬집었습니다.

좋은 리포트였지만 아쉬운 점을 든다면, 첫째, 선거구제와 선거제도의 차이점을 알려주지 못한 점입니다. 선거구제는 좁은 의미의 선거제도로 즉 투표후 각 정당이나 후보가 얻은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토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면 선거제도는 선거 과정 전반을 규정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공천제도와 선거운동 방식을 모두 포괄합니다. 현재 한국정치가 직면한 진영갈등, 지역갈등 해소는 선거구제만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둘째, 여의도풍향계는 해설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인데, 이날은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는데 초점이 놓여있었고, 깊이 있는 분석이나 해설은 없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의원들의 발언을 직접 소개한 좋았지만, 다른 사실보도와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셋째, 릴레이 발언처럼 진행된 점이 아쉽다고 했는데, 정확한 비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300명이나 되는 의원들의 토론은 결국 순서를 정해 한 명씩 발언하는 방법 외에 대안은 없습니다. 쟁점별 토론이 되지 못한 것은 그러한 형식보다는 미리 선거구제와 관련된 쟁점을 좁혀 놓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탓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전원위원회가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되었었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도 소개해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막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몇 가지 실수들이 눈에 띄어 말씀드립니다. 먼저, 4월 6일 뉴스센터 13에서는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기소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기사 중간쯤(1분 7초경) “‘혼외자設’제기 뉴욕트럼프타워 도어맨도 돈 받아”라는 자막이 나갔습니다. 設(베풀 설)이 아니라 說(말씀 설)이 맞습니다. 두 번째, 4월 8일 뉴스 17의 날씨 뉴스에서는 아래 스크롤로 지나가는 자막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찬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9일 뉴스22의 날씨코너에서는 “큰 일교차 주의”라는 제목의 그래프에서는 “내일 낮”과 “내일 아침”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사소한 실수도 너그럽게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보다 시청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점검 부탁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선거구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짧은 시간 내에 알기 쉽게 풀어낸다는 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결과적으로는 알기 쉽게 풀어낸다는 목적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량을 좀 길게 제작했다라면 조금 보완은 됐을텐데 짧은 분량 내에 담다 보니까 제약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구제하고 선거제도를 구별하지 않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자막 실수 그 부분들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방송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시청자는 실수를 이해해 주지는 않아요.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실수 하나가 방송국 전체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좀 더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 그래픽에서 시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에 나가는 경우, 그 전날 야근자가 제대로 시제를 수정해줬어야 하는데 거기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일 모레 이렇게 상대적인 시제를 안 쓸 생각입니다. 날짜로 쓰면 절대적인 시제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은 없어지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

- [단독] 2023년 4월 17일 방송, 인천서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선택 “벌써 3번째”, 건축왕 2,700여채 소유 조직적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연대 관련 소식으로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3명으로 확대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단독 기사로 피해자 연대측의 전면적인 피해조사 촉구,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일시 중지 요구, 전국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제도 허점 이용한 사회 재난”. 2023년 4월 19일 방송, 동탄서도 전세 사기 신고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 2023년 4월 19일

방송, 피해 상황에 대한 보도 내용과 함께 제도적인 부동산 거래의 허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라도 언급이 되어준다면 시청자의 이해가 빠르고 대책안 마련에 대한 의견들도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시간적인 제약,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리포트 2분짜리 하면서 사실 팩트와 해설을 다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핵심적으로 축약해 내느냐가 사실 기자들의 실력입니다.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쓰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자들이 시간의 제약만 탓할 순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한두 줄이라도 해설을 붙여서 시청자가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고민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 김희중 위원

- 홍성산불 피해 보도 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잘 지켜져, 지난 4. 4일 당시 충남 홍성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음. 이에 이상현 기자가 현장에 나가 산불 피해 현황을 직접 리포트한 바 있음.

리포트에서는 화마를 견디지 못한 지붕과 컨테이너, 축사 장면을 차례로 전하다 이상현 기자는 "현장의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돼지의 사체들이 나뒹굴고 있어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 없다"면서 양해를 구하고 리포트 이어감. 이날 뉴스는 끔찍하고 참혹한 장면을 내보내지 않으면서도 시청자들이 당시 산불 피해가 얼마나 큰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뉴스를 전했다.

과거 구제역 당시 언론에서는 가축들의 살처분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내 국민적 불편을 넘어 정서적 스트레스를 자극한 적이 있음. 그러나 이번 산불 피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피하면서도 피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보도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재난 보도에 대한 준칙이 잘 지켜진 사례가 아닌가 생각함.

언론은 각종 재난 소식을 뉴스 이용자에게 사실대로 전달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과 조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음. 다만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사실 보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달보다 국민의 집단적 트라우마나 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이상현 기자처럼 시청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타 언론사보다 느린 포털(네이버 뉴스판) 속보 체계 아쉬워, 4.10일 오후 3.32분경 광고 나가고 있음에도 미국의 국내 도감청 논란 관련 야당의 비난에 대해 '한미동맹 흔들림없어, 용산이 청와대보다 안전'하다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속보(자막)로 내보냄.

그러나 같은 시간대 네이버 뉴스판에서는 연합뉴스TV의 관련 속보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경쟁사인 YTN은 같은 내용을 속보로 내보냄.

이 밖에도 속보가 송출된 몇몇 뉴스를 모니터링해 본 결과 연합뉴스TV는 포털 상 속보가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타 언론사에 비해 상위 5번째 이내에 드는 경우를 찾기가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됨.

연합뉴스TV는 뉴스가 매 시간 라이브로 송출되고 광고 중에도 속보를 신속하게 자막으로 내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청자가 아닌 포털 등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독자에게 속보를 전달하는 데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음. 앞으로 실시간 방송과 포털 상의 속보 송고도 동시에 내보내 속보의 가치를 살려 나가길 바람.

- 사건·사고관련 자막 및 현장을 송출 시 데스크킹 조금 더 신경 써야, 지난 4.17일 뉴스투나 잇에서는 전날(16일) 강남빌딩에서 10대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켜 채 투신한 뉴스가 리포트됨.

당일 자막은 '강남빌딩서 10대 여학생 극단 선택...SNS 생중계'로 나감. 이와 관련해서 우선 '여교수' '여가수', '여경'처럼 성 차별적 언어인 '여학생'이 사용되었고, '극단 선택', '생중계' 같은 단어가 자막을 구성하고 있어 다소 자극적으로 느껴졌음. 따라서 '강남빌딩서 10대 학생...SNS 켜 채 투신' 정도의 자막이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또한 이날 리포트에는 '현장음'을 연결했는데 내용 중에 "자살 명소로 소문날 것 같아"라는 내용이 방송을 탐. 사실 이날 리포트에서 중요한 내용은 '투신 장소보다 거둬할수록 우리 위원님들 아주 세밀한 정치 양계 잘 해주실 것이 힘으로 오늘 또 지난번 좋은 분들을 중요하게 식을 주셨고 또 한편으로도 반가운 우리 회사 측에서 즉각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기 때문'을 켜 채 투신한 사실'인 만큼 해당 빌딩에서 또 다른 투신 소동이 있었다는 리포트는 왠지 사족 같은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현장음 말미에 나오는 '자살 명소'라는 부적절한 표현이 그대로 방송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음.

매일매일 리포팅되는 뉴스가 많다 보면 자막과 현장음까지 데스크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리포트시 관행적 표현과 현장음이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연합뉴스TV에선 조금 더 꼼꼼한 데스크킹이 이뤄지길 바람.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저희가 인력이나 체제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그동안 텍스트 기사를 포털에 빠르게 송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반 정도로 기억되는데 영상이 붙기 전에 데스크의 승인을 받은 단신 및 리포트 원고는 선별해서 텍스트 기사로 포털에 우선 송고하고 있습니다. 긴급 또는 주요 뉴스 속보에 대해서도 텍스트 우선 송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 10대 학생 자살 생중계 이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데스크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굳이 여학생이라는 '여'자가 붙을 이유도 없구요. 성감수성이 떨어지는 기사 처리입니다. 그러나 아주 이례적으로 자살을 SNS로 생방송했기 때문에 생방송이란 얘기는 팩트상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 선택'이라는 용어도 엄밀히 얘기하면 '자살 보도 준칙'에 어긋나는 내용이에요. 언론이 요즘 '자살' 대신 '극단 선택'이라는 용어로 많이 대체해 쓰고 있지만 이걸 자살이 '하나의 선택지'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

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망, 숨져 이 정도로 처리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 명사로 소문날 것 같다는 그런 현장음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죠.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도 아니구요.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음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서신석 위원

- 연합뉴스TV의 뉴스 스피드 '다다를 인터뷰' [적극 추천 프로그램], 시청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감동을 선사하는 뉴스코너로 더욱 활성화가 되었으면 한다.

보도채널이라고 해서 정치, 경제, 국제정세, 사건사고 등만 뉴스로서 집중 보도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깨져야 한다고 본다. 박현우 기자가 진행하는 "다다를 인터뷰" 뉴스 코너는 시청자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선사하는 좋은 뉴스보도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2023년03월13일 "도로로 쏟아진 폐지...90살 노인 도운 단 한 사람"의 경우 30만 조회 수가 넘었고, 2023년3월20일 '55,000원 짜장면의 반전...의 반전' 역시 57만 조회가 넘는다. 이렇듯 시청자들이 선행보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증거다.

연합뉴스TV가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선행과 좋은 일들에 대한 고정 뉴스보도 시간을 많이 늘려서, 사회의 긍정적 마인드 변화를 도모하고 시청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한다.

- <2023.04.06. 연합뉴스TV의 [배달잇슈] "대치동 학생들은 왜 선통 음료수를 마셨나",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 마시게 한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약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신종 보이스포싱 범죄에 대한 이슈인데, 일부 수험생에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의 각성 성분의 음료수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인식되는 보도.

배달잇슈의 4월6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대치동 학생들은 왜 선통 음료수를 마셨나"로 '메틸페니데이트'가 들어 있는 각성 성분의 음료가 학생들에게 익숙하여 선통 음료를 마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보도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전체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 '메틸페니데이트'가 들어 있는 제약회사 제품에 대한 홍보 보도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신중하게 설명해야 되느냐 판각 망상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의대 교수 다이런 인터뷰도 그렇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약의 페*드 제품에 대한 사진을 올려 놓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약, 공부 잘하는약?. 학생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또한 메틸페니데이트 급여의약품 처방 인원에 대한 2017년 7만6천명에서 2021년 14만3천명 비교 증군수를 말하면서도 "실제 ADHD 환자가 늘은 탓도 있지만 그걸 감안 한다고 해도, 처방건수도 눈에 띄니다." 등의 이진우 기자의 보도 멘트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의력 집중시키고 공부 잘 할 수 있는 음료로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많이 먹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한번 구매하여 복용해 볼까하는 심리적인 행동유발을 일으키는 보도라고 생각한다.

대치동 마약음료에 대한 같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연합뉴스TV의 4월10일 '현장재구성' 보도에서는 "'마약음료' 유포자와 공급자들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은 사건의 배후로 중국 보이스포

피싱 조직을 지목했다.”로 중국에서 근거지 둔 보이스피싱 조직소행으로 공급책 검거와 우리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로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갖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포커스를 둔 사건 보도를 하였다. 또한, 4월16일자 “마약 피싱’에 이어 정치인도 마약...전면전 선포” 뉴스 보도에서도 “얼마 전에는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 단순 마약범죄가 아닌 마약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 포커스를 맞춘 마약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위 두 뉴스보도를 볼 때 마약음료를 유포자와 공급자들의 검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마약범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신종 보이스싱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사건보도의 팩트로 보이는데, 배달잇슈의 보도 내용은 본 사건을 통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과 사용처, 일반학생과 수업생들이 많이 공부 집중력 향상을 위해 먹고 있다는 등의 자세한 분석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구매효과를 노리는 대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성 보도로 느낄 수 있어, 배달잇슈의 보도내용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런 형태의 구성 보도는 자제했으면 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다다를 인터뷰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무인점포 양심 손님’ 이런 것은 330만 뷰까지 나왔어요.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든 이래, 개별 콘텐츠로는 가장 많은 뷰수를 기록했습니다.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달 잇슈’ 문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특정 회사의 약이라든가 성분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마약음료를 길 거리에서 이렇게 쉽게 받아 마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남용하면 안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인 만큼, 결론만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이템 자체가 적절하게 소화하기 어려운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강건기 위원

- <연합뉴스TV 홈페이지 관련, 뉴스의 하위 메뉴로 “과학/ICT”등 필요>, 연합뉴스TV 홈페이지의 뉴스 란에 하위 메뉴로 “과학/ICT”“의료/복지”“산업”등 좀 더 세분화한 분야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뉴스 란의 경제나 사회 분야의 서브 메뉴로 위 세부 분야들을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전문 분야나 특정한 분야는 세부적으로 분류, 모아서 관련 기사들을 쉽게 검색하고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연합뉴스TV 홈페이지 관련, 월드줌에 국제보도채널 개선 필요 >, 연합뉴스TV 홈페이지 관련, 월드줌에 France24 채널이 단독 서브 메뉴로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Live뉴스가 아닌 2~10분 분량의 짧은 뉴스들이 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 같습니다. 문제는 생방송 뉴스를 짧게 편집하여 업로드한 것으로 프랑스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뉴스를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으로 짧은 뉴스를 매일 업데이트 하려면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을 달거나 또는 한국어로 더빙을 해서 올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매 뉴스마다 시작 전에 10초 광고(1-2번 반복됨)를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찾는 시청자도 많지 않을 것 같은 데 시작 전에 봐

야 하는 광고를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사항으로 월드줌은 대륙별 대표적인 Live뉴스채널을 배치하고, 짧은 편집 뉴스들은 세계 권역별/이슈별로 뉴스를 분류하여 한국어로 더빙하여 올리면 더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홈페이지도 저희가 약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짧은 업력에서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YTN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TV수상기 쪽에만 신경을 쓰고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것들은 신경을 잘 못 썼어요. 강 위원님이 저희도 잘 모르고 방치된 것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뉴스의 하위메뉴로 상세한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상세하게 구분을 해놓을 만큼 기사 수가 충분치 못하다는 겁니다. 방송사가 제공하는 기사라면 영상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영상 취재가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기사 수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기사 수를 확충하는대로 점차 세부 항목을 늘려가겠습니다.

- 홈페이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서 초창기에는 4개 외신사 France 24, The Guardian, Newsweek, South China Mornig post의 콘텐츠를 같이 넣고 있었습니다. 번역이 안 돼 있어서 4가지 콘텐츠가 모여 있으니 구색은 갖춰져 있었는데,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3개의 콘텐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France 24 하나 남게 된 것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판단해 오늘부로 홈페이지에서 숨김 처리했습니다.

▲ 진한수 위원

[현장의재구성] '마약음료'가 보이스피싱이었다고?... "총책은 중국",

송고시간 2023-04-10 15:34:54,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0대를 대상으로 마약음료가 무작위로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충격과 파장이 워낙 큰 사안이었고,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경위와 배후를 다룬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공감합니다. 사건 현장의 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고, 그 배후로 중국의 보이스피싱업체 조직을 지목한 경찰의 수사내용을 더하여, 유사 마약 사건의 피해를 방지하고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장의 재구성'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혹은 다른 관점에서 취재하여 말그대로 '재구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코너인데, 대통령 의견을 전하는 대통령 홍보실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코너의 취지와는 거리감이 있어보였습니다.

이어 수험생들이 해당 조직에서 건넨 마약음료를 거리낌 없이 마시게 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보도내용에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오남용을 지적하는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마약 및 보이스피싱 범죄사안을 다루는 뉴스보도에서 범죄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 처방 사례가 늘고 있고 성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부분은 해당 보도의 내용의 논점을 흐릴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대통령이 마약 음료에 대해서 엄단을 지시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김은혜 홍보수석 브리핑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20초 가량이 들어간 것은 좀 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길게 안 들어가도 내용은 충분히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문제는 마약음료 범죄의 성격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었다는 점은 앞으로 제작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 안성희 위원

- 커피 맛이 다를까요?...경제적 자립 꿈꾸는 장애인들 (4/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제적 자립을 향해 달려가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 것은 긍정적이나, '커피 맛이 다를까요?'라는 타이틀은 부정의 의미이든, 긍정의 의미이든 (일반인과의) '다름'을 부각시킬 수 있어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용브리핑365] '고립·은둔' 택한 청년들 (3/22) 청년 '취포족' 사상 최대 (3/28) 직장인 평균 대출액은? (4/4) "실업급여 1조 원대" (4/18), '고용브리핑365'는 각종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 데이터 등을 토대로 고용 및 산업동향을 쉽고 빠르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매체와 차별화되고 특화된 코너여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4. "직장인 평균 대출액은?"에서 오프닝에서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노래를 언급하는 등 기자의 재치가 가미되어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4.18. "실업급여 1조 원대"에서는 다양한 변수 등이 제시되어 일반인들의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통계 수치나 그래프로 변화 추이 등을 추가해준다면 이해가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장애인이 만든 커피하고 맛이 다를까요? 안 다릅니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고용브리핑365' 저희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받아서 만드는 방송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경제 아이템 같은 경우는 통계 수치와 그래픽 같은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시청자가 훨씬 친근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 보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

- 4월 들어 휘발유값 상승세 전환, 전기료 인상 우려 등 서민경제 관련 보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리포팅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과 인터뷰 잘 녹여 넣어 현장의 목소리가 생동감 있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가의 목소리를 빌어 현황을 진단하고 전망도 같이 짚어줘 효과적인 보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 4/10, 채널23, '유류세 인하 종료 임박했는데... 다시오르는 기름값'
- * 4/15, 토요와이드, '곧 더워지는데... 전기료 인상 앞둔 자영업자 한숨' 등

기자 리포팅만으로도 보도가 잘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뉴스리뷰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4개월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기자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 배경이나 유류세 현황, 정부입장 등 관련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리포팅을 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반면, 지난 16일자 보도중에는 작년 한국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이 금융위기 이래 최저 수준이라는 내용이 짧게 보도됐습니다. 수출금액과 비중, 그리고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고, 2년 연속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는데 팩트 전달 외에 원인이나 전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맥락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4/16, 일요와이드, '작년 韓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2.7% ... 금융위기 이래 최저'

* 4/18, 뉴스리뷰, '물가 부담에 유류세 인하 4개월 더 ... 인하폭도 유지'

경제뉴스의 경우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따라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요소들이 포함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단순 팩트의 전달하기 보다는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나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깔끔한 리포팅을 통해 보도의 퀄리티를 높여나갔으면 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시간의 제약하에 얼마나 시청자에게 친절하게 뉴스를 전달하느냐 문제인데요. 1분 반에서 2분짜리 리포트에서 시간의 제약 얘기가 나오는데 30~40초 짜리 단신에서는 문제가 더 크죠. 그렇다고 모든 뉴스를 1분반 이상의 리포트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면 뉴스 시간을 소화할 수 있는 뉴스의 가지 수가 줄어듭니다. 단신에서도 한 줄 정도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을 넣어보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 도로공사 직원, 출근길 쓰러진 남성 심폐소생술로 구해(4.6), 3월 20일 오전 6시 30분쯤 안양역 대합실에서 한 60대 시민이 구토와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출근 중이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자 발 빠르게 119에 신고하면서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를 취했고, 119가 도착하자 홀연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쓰러진 시민은 다행히 의식을 찾았고,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 및 치료를 받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민은 퇴원 후 SNS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직원을 수소문해 찾았고, 직원의 선행은 뒤늦게서야 미담으로 소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가장 빨리 알린 언론은 연합뉴스TV의 4월 6일 밤 10시 9분경 뉴스였고, 다음 날 아침 8시 53분 '핫클릭' 뉴스에서도 또 한 번 소개가 됐습니다.

이날 다른 언론에서도 뒤늦게 뉴스가 보도되는 상황을 보면서 '연합뉴스TV가 사회의 망원경과 현미경과 같은 시야로 곳곳에 알려지지 않은 미담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의인상', '생명존중대상' 등과 같이 위기 상황 속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분을 찾아 시상하는 다양한 상찬(賞讚)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일화가 훈훈한 미담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가 이러한 역할을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잘해왔다고 칭찬하

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언론으로서 진실을 알려 사회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다하는 언론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재난 뉴스 보도 시 수어통역 제공 비중에 대한 아쉬움, 4월 12일경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되고, 그 피해가 크다는 특보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떨어졌을 정도로 당시 상황이 심각해 연이은 뉴스 보도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수어통역 편성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보 뉴스 관련해 한 시민언론단체가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에서 메인 뉴스에 수어통역 제공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을 했고, 이것이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력과 예산 문제로 수어통역 제공 뉴스의 편성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농인(聾人)들이 뉴스 정보의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연합뉴스TV는 보도전문채널이자 공영언론으로서 적어도 재난방송처럼 사안이 긴급하고 중한 뉴스에 있어서는 수어통역 제공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기사는 도로공사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른 기사였습니다. 미담 기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어 통역은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수어 통역으로 인해 화면 구성이 복잡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잘 안하게 되죠. 하죠. 이리다보니 방통위가 의무편성 비율을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5%였는데 지금은 7%로 확대된 상태구요. 저희는 8.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2회, 휴일에는 1회 수어 방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보다는 대피 등이 필요한 재난상황에서 수어가 더욱 효과적이겠죠. 다만, 재난 특보 상황에서 수어 방송을 급하게 늘리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수어 통역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잘하는 수어 통역자들은 한정적이고 의무 편성 비율에 따라 각 방송사가 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일정이 다 차 있어서 갑자기 확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재정 여건이 좀 더 나아지는 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차원에서라도 수어방송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거듭할수록 우리 위원님들, 아주 세밀하게 의견을 주시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회사 측에서도 즉각 지적인 것을 경청하시고 의견을 수용 및 답변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4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끝)